

2007년 9월 7일

중국의 판다, 열정과 투우의 나라 스페인으로

판다 커플 ‘빙썩(Bing Xing)’과 ‘후아 주이바(Hua Zuiba)’

중국에서 스페인까지 길지만 편안한 여행

중국에서 한 쌍의 판다가 지구 반 바퀴 너머 새로운 보금자리인 스페인 마드리드 동물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TNT 트럭에 몸을 실었다. 한 쌍의 판다 커플 ‘빙썩(얼음별)’과 ‘후아 주이바(귀여운 입술)’은 중국 청두 자이언트 판다 번식센터에서 눈물의 작별행사를 가진 다음 청두공항으로 떠나 스페인까지 이틀 동안의 여정을 시작했다. 청두공항에서 상해를 거쳐 마드리드로 옮겨진 판다들은 스페인과 중국이 함께 진행하는 자이언트 판다 국제 보호 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10년 동안 스페인에 머물게 된다.

판다들은 일차적으로 상해 도착 직후 에어컨이 있는 대형 컨테이너로 옮겨져 수의사들의 보살핌 하에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판다들은 TNT의 보잉 747편을 이용 마드리드까지 14시간 동안의 긴 비행을 시작했다. ‘빙썩’과 ‘후아 주이바’는 현지시간 14시 40분경에 마드리드에 도착, 스페인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 후 판다들은 TNT 트럭으로 마드리드 동물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판다들은 앞으로 현지 적응을 위한 얼마간의 휴식을 취한 후, 2007년 9월 말에 화려한 공식 데뷔를 하게 된다.

마드리드 동물원(빠르게스 헤우니도스 그룹 소속)의 기술 책임자인 지저스 페르난테즈 모란(Jesus Fernandez Moran)은 “살아있는 생명을 운반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충분한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며 “작업의 시작 단계부터 TNT의 스페셜 서비스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TNT가 이러한 유형의 작업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TNT 스페인의 곤잘리오 치코 바르비에르(Gonzalo Chico Barbier) 사장은 “이번 판다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송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인 판다였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에서 신속한 운송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운송과정 내내 수의사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TNT는 다양한 산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업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